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8. 5

주간 달러/원 동향(7/29~8/2)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예상에 부합한 미 6월 PCE 데이터 확인 후 시장 내 안도감이 유입된 가운데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지속되며 환율은 하락 출발. 이어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되돌림 나타나며 상승
- 중반, BOJ의 금리인상 결정과 국채 매입 축소 계획 등 매파적 결과에 엔화가 급격한 강세를 보이자 이에 연동되며 환율은 큰 폭 하락
- 후반, 파월 연준 의장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 언급에 따른 달러 약세와 리스크 온 분위기에 1,360원대 진입. 이어 주 후반, 미 제조업경기 위축에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1,370원대로 상승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85.5	1,386.2	1,361.6	1,371.2	-14.3

달러/원 전망

- 미국 7월 실업률이 4.3%로 급랭함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9월 연준에 대한 금리인하 및 그 폭에 대해서도 50bp 언급 등을 이끌어낸 점 등이 달러 약세를 통해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물론 고용충격에 따른 경기침체는 안전자산 선호 요인이나 전주 후반에 상당부분 환율 가격에 반영된 상태에서 연준의 강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확대가 우위를 점할 전망
- 다만, 최근 중동 정세가 서방의 레바논 여행금지 등 헤즈볼라발 전쟁 확산 우려가 커지는 점 등은 위험회피를 통해 달러 약세 영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예상거래범위
1,350원 ~ 1,370원

엔·유로화 동향 (7/29~8/2)



유로화 동향

- 주초, FOMC를 앞두고 ECB와 연준 간 통화정책 스탠스 차별화 영향이 지속되는 측면을 반영하며 유로화는 약세 출발. 이어 독일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1%로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란 불안감이 유입되며 추가 약세
- 중반, 도비시한 7월 FOMC 결과에 연준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가 강화됨에 따라 달러 대비 강세
- 후반, 미 ISM 제조업 PMI 위축세와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에 시장 내 리스크오프 분위기가 나타난 영향으로 약세 전환. 이어 주 후반, 미 고용지표 둔화에 연준이 금리인하 속도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부각되며 글로벌 달러 약세 나타난 가운데 1.09달러대로 상승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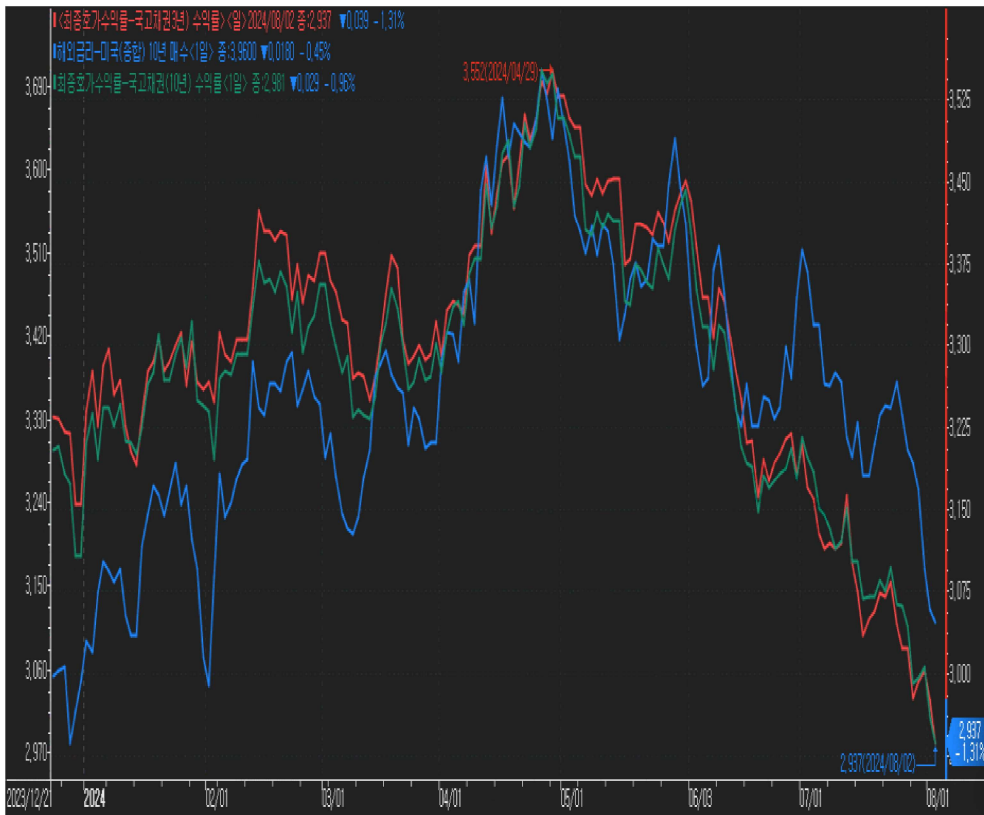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BOJ 통화정책회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추가 긴축 여부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약세 출발. 이어 BOJ의 추가 금리인상 결정이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급격한 강세 전환 후 140엔대에 진입
- 중반, 파월 연준 의장의 도비시한 발언에 미-일 금리차 축소 기대감이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 지속
- 후반, 예상보다 부진한 미 제조업 지표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와 중동 지역 확전 가능성 등에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추가 강세. 이어 주 후반, 미 노동시장 냉각에 미 국내수익률이 급락하자 엔화 강세 압력이 가중된 가운데 146엔대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856	1.0927	1.0778	1.0911	-0.0028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3.7	155.2	146.4	146.5	-7.2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7/29~8/5)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국 6월 PCE 가격지수의 하락 경로 유지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반영한 뉴욕채권시장 강세로 국고채 금리 급락 출발. 이어 금통위 의사록에서의 시장 금리 인하 기대 관련한 금통위의 경계감 등으로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미 6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른 고용 현황의 견조함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영향 반영된 가운데, BOJ의 금리인상 단행 영향은 국내 금리 방향성에 제한적 영향을 미친 국면
- 후반 들어, 7월 FOMC 결과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비둘기적 상황에 따라 시장의 9월 금리 인하 기대 확대 등으로 국내외 금리 하락 전환. 이어 주 후반, 전일 미 고용보고서 및 제조업 지표의 냉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부각으로 뉴욕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 강화 속에 미 국채금리 큰 폭 하락에 따라 국고채 3년 물 금리는 2.94%까지 하락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국 6월 PCE 지표 개선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전주 호실적을 시현한 기업들에 상승 탄력 반영 등으로 코스피는 상승 출발. 이어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둔 가운데 경계감 강화 등으로 소폭 하락
- 중반 들어, 삼성전자 기업실적 호조 및 뉴욕증시의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 역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 등이 투자 심리 개선에 반영되며 상승 재전환
- 후반 들어,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크게 반영된 가운데 국내외 금리 하락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 반영 등으로 상승세 지속 후, 주 후반, 미 주요 경제지표가 경기침체 양상에 진압했을 것으로 인식된 가운데 이에 대해 적절한 시점 금리인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뉴욕증시 폭락 속 코스피도 1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마감